

지역 소식통



부안자위봉사센터-전기안전공사  
행안면 찾아 세탁 봉사활동

부안군자위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지난 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지사장 정용욱)와 함께 행안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뽐송이를 함께 운영했다.

이날 부안군을 찾은 정용욱 지사장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부안군자위봉사센터 직원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멋진 일을 하신다며, 앞으로도 작은 힘이지만 자주 보태어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수혜 계층에게 큰 만족을 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부안군자위봉사센터 김영배 센터장은 이어서 "늘 센터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뽐송이를 운영을 위해 세탁세제도 지원해 주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로 두 기관이 상생발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는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감, 혁신 및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에너지 안전을 이룩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지난 6월 부안군자위봉사센터와 지역 내 자원봉사 영역확장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뽐송이'는 2023년 올해부터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의 대형 빨래감을 세탁하여 각 가정 및 기관에 배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앞으로도 부안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 구절초 꽃축제, 성황리 마무리

축제기간 11일 포함 구절초 개화기간, 30여만명 방문... 전국적인 여행명소로 인기몰이

제16회 정읍 구절초꽃축제가 수십만 명의 방문객에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11일간의 여정을 끝마쳤다.

정읍시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펼쳐진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축제 기간과 전후를 포함해 총 30여만명의 관광객이 구절초 정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최대 구절초 산지인 구절초 지방정원을 배경으로 구절초 숲꽃잡, 꽃열차, 정원만들기, 버스킹 등을 진행해 눈과 귀, 마음에 힐링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와 농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판매부스도 열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방문객들은 15만㎡의 숲속 구절초의 경관과 들꽃정원의 화사한 꽃백일홍, 코스모스 등의 가을꽃 향연에 매료됐다. 올해 처음 개장한 집외어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제16회 정읍 구절초꽃축제가 수십만명의 방문객에게 가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11일간의 여정을 끝마쳤다.

강연천 구절초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를 준비해 온 모든 이들 덕분에 축제를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이번 축제에서 구절초 정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유명정원과 비교해도 정원 인프라가 손색이 없다는 찬사가 이어졌다"며 "구절초 정원이 축제의 장을 넘어 사계절 찾는 정원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구절초 정원은 아름다운 가을꽃들이 준비해 있다. 이달 말까지는 구절초를 비롯한 가을꽃을 볼 수 있을 것

으로 2박3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1~22일 농업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모집한 고창군을 방문하고 싶은 은퇴예정자 10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체류형 센터 견학,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진행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고창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귀농체험학교 4회차 성료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35명 대상 진행

고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귀농체험학교 4회차를 진행했다.

첫날은 고창군 농업 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귀농 우수농가인 고창 화산마을 홍성만 농가를 찾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귀농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날은 상하면 토굴밭효농장에서 귀농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복분자 코디얼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마지막날은 귀농 우수농가 보니타 허브농원에서 '허브와 치유' 강의를 들으며 허브삼주 만들기 체험을 끝

으로 2박3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1~22일 농업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인 '그린대로'에서 모집한 고창군을 방문하고 싶은 은퇴예정자 10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체류형 센터 견학, 귀농귀촌 정책 설명을 진행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고창으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완료

긴급차량 우선신호 · 스마트교차로시스템 적용

안정적 교통체계 구축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기대

정읍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류 스마트제어 서비스 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18억(국비 10억8000만원, 시비 7억2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3월 실시계획을 착수해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협의, 실시계획 승인·고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등을 완료했다. 이후 공사 추진

에 박차를 가해 ITS구축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 대상은 총정로(아산병~현대3차) 5.3km, 서부산업도로 3.9km(연지사거리~박동교차로) 총 9.2km으로 주요 간선도로 상에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적인 교통 운영과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 혼잡 구간의 교통량 수집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호운영과 교통정책 수립 기반 데이터를 확보해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심 혼잡 구간에 대해 ITS 구축을 추진해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정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교차로 등 도심 혼잡구간의 교통정보 수집하고 제공해 보다 나은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긴급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 우선 신호를 부여해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인명구조 역할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위한 단일균 생산시스템 증설

내달 12일까지 미생물 공급 중단

고창군(심덕섭 군수) 유용미생물 배양장이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주간 미생물 공급 확대를 위한 단일미생물 배양 생산시스템 증설공사로 미생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

현재 고창군 미생물배양장은 약 2,000여 농가가 매년 이용하고 있고 고창군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유용미생물인 EM, 광합성균, 고초균 등이 농작물 생육개선, 토양 환경개선, 농

작물 생장촉진, 축사 악취감소 등에 높은 효과가 있어 고창군에서 올해만 350톤을 공급할 정도로 농업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그러나, 미생물 생산시설이 365일 배양, 공급으로 노후화되고 생산량이 한정되다 보니 농업인들의 실수요량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억9000만원의 투입해 단일미생물 생산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기준 년 300톤 생산공급에서 내년도에는 단일 미생물, 고온성 미생물 등 950톤까지 미생물이 생산 가능한 시설로 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연작 장애 감소 및 농업 생산성이 올해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유용미생물 사용법 등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미생물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행정 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의견 받는다

정읍시의회, 31일까지 시정 관련 제보·제안 등 접수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제보나 제안 대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이다.

행정 사무감사는 11월 10일에 개원하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의회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지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제보나 제안 대상은 시정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이다.

고경운 의장은 "행정 사무감사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읍시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문 사항에 대해 중점 감사할 것이며, 시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RI-ADME 평가 플랫폼 센터 구축 전략 포럼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서 개최

정읍시는 지난 19일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RI-ADME 평가 플랫폼 센터 구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형우 부시장과 고경철 국가전임시험지원센터장, 최우성 메디카나 바이오 대표, 최남송 건양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원장을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 등 30

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1부에서는 'RI-ADME 플랫폼의 필요성과 중요성'(첨단방사선연구소 박상현 박사) 등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RI-ADME 중요성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최남송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